



아프로윈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피커 '일렉웨어'

야외서 음악 들으며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어

“야외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음악을 들으며 운동하세요.”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사무실을 둔 아프로윈은 웨어러블 블루투스 스피커 ‘일렉웨어’를 개발한 업체다. 어깨 부분에 스피커가 내장돼 이어폰 없이도 음악을 즐길 수 있다. 얇은 벨벳(하네스형)으로 조끼처럼 입으면 된다. 지향성(指向性) 스피커는 착용자에게 잘 들리지만 3~4m만 떨어져도 소리를 들을 수 없다. 이윤은 대표는 “선유와 정보기술(IT) 융합 상품은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사는 또 “자전거에 스피커를 장착하면 소리가 퍼져 주변에는 소음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저히 지향성 스피커에 초점을 맞췄다”고 어깨 부분에 스피커 내장 혼자만 소리 들을 수 있어 차 소리·새 소리 함께 들려 자전거 타면서도 안전

중장년층이 더 관심 많아 헬스용품 등으로 진화



이윤은 아프로윈 대표가 어깨 블루투스 스피커와 LED 방향등이 내장된 벨벳(하네스형) 웨어러블 스피커 ‘일렉웨어’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동업자인 최영철 이사, 이 대표, 김남우 이사.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이어폰 대신 입는 스피커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일렉웨어’는 이 대표와 동업자인 김남우 아프로윈 이사가 10여 년 전부터 연구해온 아이템이다. 음악과 자전거를 모두 좋아하는 김 이사는 자전거를 탈 때 이어폰을 착용하면 위험하고 민에 빠졌다.

덧붙였다. 일렉웨어의 또 다른 장점은 좌우 깜빡이로 쓸 수 있는 LED(발광다이오드) 방향등이 어깨 뒤쪽에 부착돼 있는 것이다. 리모컨으로 스피커뿐 아니라 방향등을 켜고 끌 수 있다.

그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으면 음감이 좋지만 답답하고 불편하다”며 “일렉웨어는 귀를 열어놔 안전하고 새 소리나 바람소리, 자동차 소리 등 외부음과 같이 음악을 들어 라이브 음악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다”고 말했다. 김 이

이 대표에 따르면 웨어러블 스피커는 사업성을 갖기가 쉽지 않았다. 의류에 넣은 전자부품은 고장 나면 옷을 뜯어야 한다. 유지보수가 쉽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든다. 이 대표는 “스피커와 앱 등 부품

을 콤팩트하게 개발했고 섬유 안으로 쉽게 넣었다 뺄 수 있게 디자인했다”고 설명했다. 아프로윈은 하네스형(7만5000~10만5000원) 외에 어깨 끈에 스피커와 LED등을 내장한 배낭(10만5000원)을 함께 출시했다. 국내에선 자전거용과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다.

◆헬스용품 등으로 진화 이 대표는 전사회에 참가해 보면 40~60대가 일렉웨어에 더 열광한다고 설명했다. 요즘 중장년층은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데다 젊

은 층보다 귀가 망가지는 것에 더 예민하기 때문이다. 기술 확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표는 “웨어러블 스피커가 GPS(위성항법시스템)나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IoT) 등과 결합하면 시각장애인을 인지 보조장치가 될 수 있고, 접촉성 센서를 통해 각종 신체 활동을 체크하는 헬스용품으로도 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술력은 이 회사가 생산하는 태권도 용품에도 적용됐다. 아프로윈은 세계적 태권도 공인호구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jkim@hankyung.com)로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1월 으뜸중기 제품 △휴먼라인-마음을 맡기는 맨탈다터 △아프로윈-웨어러블 블루투스 스피커 △스마트사운드-임신부 필수품 스피커 △이테크-우리아이 수호천사

업체인 스페인 대도사에 인기 캐릭터 아이언맨을 활용한 전자호구를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납품하기 시작했다. 호구에 발이 닿으면 가슴에 달린 동근 LED판의 점수가 올라가는 제품으로 태권도를 즐기는 일반인을 위한 것이다. 김 이사는 “오노바이의 속도가 높아지면 자동으로 볼륨이 조절되는 스피커를 넣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며 “착용감이 더 좋은 의류에 고기능 스피커 등 다양한 IT 제품을 접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콜레스테롤 ‘0’ 마요네즈 개발 식물성 제품으로 해외 진출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 계란 대신 콩 넣은 마요네즈 지방·나트륨 함량 적고 단백질·식이섬유는 많아 해외 채식주의자 시장 개척



“우리 마요네즈는 콜레스테롤이 없고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많이 함유돼 있습니다.”

더플랜잇은 계란 우유 육류 등 동물성 원료를 식물성 원료로 대체해 식품을 생산하는 ‘푸드테크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다. 양재식 더플랜잇 대표(32·사진)는 “육식 위주 식습관이 일으키는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장업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가 생각한 대안은 동물성 원료를 빼고 식물성 원료를 넣어 맛있는 식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마요네즈가 첫 결실이다. 더플랜잇은 지난해 7월 ‘몽요네즈’에 천연유화제 쓰인 계란 노른자를 약콩대두진액으로 바꾼 게 우리 제품의 차별점이라고 했다. 식물성 원료인 약콩과 대두는 동물성 원료인 계란 노른자와 분자 구조가 다르다. 이를 적절히 배합하고 조제해 계란 노른자의 분자 구조에 가깝게 만든 물질이 약콩대두진액이다.

콩으로마요는 계란 노른자를 넣지 않아 기존 마요네즈보다 칼로리, 지방, 나트륨 함량이 적고 콜레스테롤이 없다. 단백질과 식이섬유 함량은 상대적으로 많다. 맛과 향은 기존 마요네즈와 비슷하다. 주요 소비자는 아이 먹거리에 신경 쓰는 30~40대 주부다. 계란 알레르기가 있거나 환경 문제나 동물 보호 등에 관심 많은 사람들도 제품을 찾는다.

더플랜잇은 해외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다. 양 대표는 “영국채식협회의 인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잘 마무리되면 외국 비건(채식주의자) 시장 개척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콩으로 만든 햄버거로 유명한 인파서블푸드 관계자와 만나 공동연구를 논의했다. 그는 “인파서블푸드가 2018년 아시아에 진출할 계획인데 한국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치매치료제’ 개발 요원... 화이자·MSD 등 임상 잇단 중단

기존 가설로는 개발 어려워 새로운 접근법 주목받아 국내 업체, 천연 생약 개발 진행속도 늦추는 데 집중

제조사	제품명	중단 시기
화이자-존슨앤드존슨	바피뉴주입	2012년 7월
로슈	간테네루입	2014년 12월
일라이릴리	솔라네주입	2016년 11월
MSD	베루베세스트	2017년 2월
엑소반트 사이언스	인테피르딘	2018년 1월

치매 치료제의 패러다임이 대변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6일 세계 1위 제약사 화이자가 수조원을 투입해온 치매 치료제 개발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최근 엑소반트사이언스 등 내로라하는 바이오기업까지 줄줄이 임상에서 실패했다. 기존 가설로는 완치제 개발이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새로운 접근법이 주목받고 있다.

제 임상을 중단했다. 이들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을 제거하는 약물을 개발해왔다. 치매 환자의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쳐진 덩어리 형태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의학계는 이 덩어리들이 독성 물질 배출하고 염증을 일으켜 신경세포를 손상시킨다고 본다. 그러나 베타 아밀로이드를 없애도 치매가 개선되지 않는다는 임

상 결과가 나오면서 이 같은 가설이 흔들리고 있다. 일라이릴리의 ‘솔라네주입’, MSD의 ‘베루베세스트’가 대표적이다. 김기웅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베타 아밀로이드는 다른 요인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를 제거 하더라도 근본적인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벤처기업 알렉터는 면역세포인 마이크로글리아를 활용해 뇌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치료제를 개발, 지난달 미국 제약사 에브비로부터 2억 2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미국 제약사들은 천연물을 활용한 생약 개발에 나서고 있다. 환

인 제약은 당귀, SK케미칼은 백두옹으로 임상을 했으나 성과가 나오지 않아 중단했다. 광동제약과 일동제약은 각각 현삼과 멸구슬나무 열매 천연자 생분을 활용해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포스트와 차바이오텍 등은 새로운 신경세포를 불러오는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

중소벤처무역협회 인가 정년권·송재희 공동 회장



정년권 송재희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가 14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인가받았다고 밝혔다. 정년권 남정사 대표와 송재희 전 중소기업중앙회 상근회장이 초대 회장을 맡았다. 160여 개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했다. 협회는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공동브랜드 개발과 인증, 무역박람회 개최, 청년 해외취업 촉진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창립 총회는 3월로 예정됐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10년 동반성장 정책, 실효성 떨어져”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59% “큰 변화없다”

협력이의배분제 도입	45.0
생계위협업종 규제화	35.2
상생협력 지원 확대	26.4
미래성과공유제 확산	24.4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정부가 2008년부터 중점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해 12월 대기업 협력업체 500개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는지 묻는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9%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선됐다’는 의견은 31.8%, ‘악화됐다’는 응답은 9.2%였다.

정책과제로는 ‘협력이의배분제 도입’을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생계위협업종 규제화’를 통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장(35.2%), ‘상생협력 지원 확대’(26.4%) 순이었다.

동반성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36.4%가 ‘민·협 합의 중시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을 꼽았다. 새 정부가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한국경제TV 한국외국어대학교

K-VINA 비즈센터

“제1기” 베트남 CEO·최고위 과정

※ 센터 연간회원 혜택 교육비용 20% 지원

한국경제TV가 우리 기업들의 베트남 진출을 지원합니다.

교육과정

베트남 CEO·최고위 과정 (주1회, 화요일/ 총 16주 / 4개월 과정)
베트남어 17:20 ~ 18:10 / 석식 18:10 ~ 19:00 / 강의 19:00 ~ 20:50

교과내용	
· 베트남 국가 개요 및 경제 산업 동향	· 마케팅 및 유통 물류
· 베트남 역사 및 철학 (후치민 사상 참조 분석)	· 도시계획 및 부동산시장
· 베트남 생활문화 및 종교, 사회 환경	· 주식, 펀드 및 금융시장
· 베트남 예티켓 및 협상 전략, 사업 특성	· 유망 비즈니스 및 창업 아이디어
· 노동 및 법무 이해	· 현지투자 진출 전략 및 전략 분석
· 세무 회계 및 각종 세금 이슈	· 현지 사업 성공사례 연구 및 명사특강
· 마케팅 및 유통 물류	· 3박 4일 베트남 해외 연수

교수진 소개

- **김경문**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 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아시아태평양 본부 본부장
- **김고현** 한국문화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실장
- **김용욱** 법무법인JP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광명 호치민 법인장 역임
- **김종욱** 정운대 베트남학과 교수, 베트남연구소 소장 역임
- **김현수** H&M대법 대표, 한국대 부동산대학원 글로벌관공 겸임교수
- **부우연호** 한국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수석연구원
- **서여수** NIBC 국제개발연구소 소장, 베트남 호치민 통통대 도시계획과 겸임교수
- **안정환** 조선대 아시아 통상학부 교수, 한국베트남학회 회장 역임
- **여옥준** 법무법인JP 하노이지방 지사장, 부동산개발사 Viet Han 그룹에서 역임
- **임병관** 이경 회계법인 대표이사, 한국공인회계사 겸 세무사/베트남공인회계사
- **전혜경** 한국외대 베트남어 과 교수
- **정우선** 신한은행 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베트남 금융-외환 권문기)
- **조재현** 한국외대 베트남어 과 교수, 연수평가원장, 국제지역대학원장 역임

모집요강

베트남 CEO·최고위 과정

교육기간	2018.1.30. ~ 2018.5.15. 매주 화 저녁 4시간
지원자격 및 교육내용	- 베트남상권(또는 진출 희망) 기업 및 협회 임원 - 정부 및 산하기관 고위 관리자, 고위 공무원 - 베트남 사업-경영-투자를 위한 경영자-수요교육
교육장소	코엑스 컨퍼런스룸 (남측) 3층 301호
수강료	비회원:880만원 (부가세 포함), K-VINA센터 회원: 20% 할인 (의식, 현지연수, 호프팅 포함)
일시접수	- K-VINA 홈페이지 교육과정 페이지 온라인 접수 - 전화: 02-2173-3427, 이메일: kvinahufs@wowtv.co.kr
등록기간 및 준비서류	- 2017.12.27. ~ 2018.1.19. 1. 입학지원서(온라인접수), 2. 본인 사진2매(JPG파일 가능) 3.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여권사본

▶ 교육 이수 특전

- 한국외대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한국외대 동문 자격 부여
- 베트남 사업-진출 관련 K-VINA센터 정보제공
- K-VINA센터 전문위원 및 베트남전문가 네트워킹

교육문의 및 신청

02-2173-3427 kvinahufs@wowtv.co.kr

홈페이지 kvina.wowtv.co.kr